문명 없는 문명 타왕복드의 가르침

알타이 유목민 돕기 특별 기획전
‘알타이, 푸른 하늘을 꿈꾸며…’
불일미술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알타이 유목민을 돕기 위한 사진전이 열린다.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특별기획전 ‘알타이. 푸른 하늘을 꿈꾸며’를 개최한다.

알타이 유목민들의 의약품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감 스님(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과 사진작가 이승호, 불자 김국일 씨가 1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몽골 알타이 타왕복드 지역의 자연과 주민들의 삶을 촬영한 사진 100여 점을 선보인다.

“알타이, 푸른 하늘을 꿈꾸며…, 알타이 타왕복드, 신령스러운 설산 아래 우리와 닮은 얼굴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옛날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을 이어서, 전통 유목민의 숭고한 삶을 아름답고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우리랑 얼굴도 닮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생각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같은 조상의 후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삶을 기록한 암각화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감 스님과 알타이 타왕복드 지역 주민들과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타왕복드 지역은 약 5천 년 전에서 약 7천 년 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암각화가 많은 지역이다.

일감 스님은 3년 전 처음 암각화를 보기 위해 타왕복드를 찾았다. 암각화에는 문명을 이루고, 문명의 속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삶의 지혜와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곳의 암각화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다. 지금의 생각과 다른 지혜, 지금의 방식과 다른 삶, 지금의 세계와 다른 문화 등 그림 속에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현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다.

수행의 일환으로 몽골 지역을 찾아온 일감 스님은 휴가 때마다 그 새로운 가르침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타왕복드를 찾았다.

암각화를 보기 위해 9차례 몽골 지역을 찾았고, 그중 타왕복드 지역을 4차례 찾았다. 스님은 암각화의 탁본을 만들고 그곳의 주민들과 교감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사진들은 4번 째 방문의 흔적들이다. “사진에 담긴 타왕복드 지역엔 10가구 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곳 사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난 방문에서 문명과 떨어져 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의약품입니다. 병원과 약국이 먼 그곳의 사람들에게 가정상비약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승호 作


일감 스님 作


이승호 作

지난 방문 때 할머니 한 분이 어깨통증을 호소했는데, 가지고 간 진통제를 요긴하게 쓸 수 있었고, 그때 가정상비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일감 스님은 방문 때마다 암각화 탁본과 현지의 사진을 촬영해왔는데, 다음 방문 때 주민들에게 사진을 선물해왔다. 일감 스님과 세 번째 타왕복드를 방문한 사진작가 이승호 씨는 그 동안 타왕복드를 사진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의 사진은 대부분 이승호 작가의 사진이다.

사진은 제목에서처럼 타왕복드의 푸른 하늘과 그 푸른 하늘 아래서 푸르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일감 스님은 전시를 준비하며 “미세먼지로 푸른 하늘을 보기 힘들어진 우리의 오늘에서 전시의 제목을 떠올렸다”고 했다.

이승호 사진작가는 오래전부터 각지의 산사 등 불교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왔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불자들과의 만남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동안 그들이 잘 지켜온 푸른 하늘과 고대 암각화를 우리의 후손들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며 기금마련에 많은 동참을 부탁했다.

일감 스님은 이번 전시의 수익금으로 의약품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7월에 타왕복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02)733-5322.

사진으로 해석한 ‘진공묘유’

라규채 사진전 ‘진공묘유(眞空妙有)’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기획초대전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공묘유(眞空妙有), 일체를 공(空)으로 볼 때, 일체는 성립된다. 쉽고도 어려운 진리의 세계를 사진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담양의 대나무를 소재로 작품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사진가 라규채 씨가 ‘진공묘유’를 사진으로 해석했다.

라 작가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로터스갤러리(광주 무각사)에서 기획초대전 ‘진공묘유’ 전을 개최한다. 라 작가가 그동안 진행해온 Emptiness project(空 시리즈)의 열네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수많은 점들로 이미지를 구성한 흑백사진들로 우리가 평소 눈으로 보고 있는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 라 작가는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반사광에 의해 드러나는 외형적 허상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태양광에는 가시광선을 비롯한 자외선, 적외선, X선, 알파 · 감마 · 베타선 등 수많은 광선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 하나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선사상(禪思想)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물질에는 본래 실체가 없는 공(空)을 표현하고 있다. 그 공(空)의 끊임없는 진동이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며, 가시적 세계는 이러한 진동의 리듬이 만들어내므로 우주 속 삼라만상의 본질이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미세하게 흐르는 파동과 진동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라규채 作 Untitled #020

작품에서 텅 빈 공간과 간격을 통해 빈 공간이 형상적인 가시적(可視的)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망막의 단순한 지각활동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지적(可知的)세계와 형이상학적 충만함이라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의미를 담아냈다.

라규채 작가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국내외에서 14회에 걸친 개인전(초대전)과 1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또한 미얀마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포토에세이 ‘하늘은 나는 새는 뼛속까지 비운다’를 비롯해 6권의 사진집을 출간했고, ‘사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전시회 오픈행사는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에 진행한다. (062)383-0070.

박재완 기자

법석부터 시사까지… BBS 봄맞이 개편

4월 1일부터 편성 · 송출 시작
이상휘 교수 ‘아침저널’ 맡아
천태종 스님들 3분설법 눈길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라디오가 4월 1일부터 봄 개편을 통해 고품격의 시사와 음악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편성했다.

우리 시대의 현장 이야기로 아침을 여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아침저널’은 4월 1일부터 새 진행자를 내세웠다. 아침저널의 새로운 진행자인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 위덕대 부총장 등을 지냈고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 시사 평론가로 활동해 왔다.

‘이상휘의 아침저널’은 매일 아침 뉴스의 중심인물을 초대하는 파워 인터뷰와 수요 정치토크, 최순애의 이슈 상담소, 북한 인사이트, 박찬종 전 의원과 함께 하는 고수 사이다, 이것이 법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청취자들을 만난다.

‘이상휘의 아침저널’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BBS FM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고품격 음악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는 ‘최다혜의 음악을 거닐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방송된다.

피아니스트 최다혜 씨는 국내외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면서 음악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퍼포먼스로 잘 알려져 있다. ‘최다혜의 음악을 거닐다’는 세계 유명 콘서트홀에서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을 비롯하여 다양한 뮤지션들의 깊이 있는 음악세계를 통해 주말과 휴일 청취자들에게 음악적 휴식과 위안을 선사할 예정이다.

1990년대 가수 김광석이 진행한 BBS불교방송의 간판 심야 프로그램 ‘밤의 창가에서’는 4월부터 구자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를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채운다.

한국 불교의 주요 종단인 천태종 스님들의 3분 설법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천태의 법향’은 매일 오전 5시 55분에 방송되며 현대인들의 고뇌와 종교적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성민 기자

